

### 검역중 경계해충 개미바구미(*Cylas formicarius* Fabricius)의 최초 발견 보고

#### Report on the First Interception of *Cylas formicarius* Fabricius (Coleoptera: Curculionidae) in Quarantine

신 현 포 · 박 창 일 · 정 광 섭<sup>1</sup>

Hyun Pho Shin, Chang Il Park, and Kwang Seob Jeong<sup>1</sup>

1988년 7월 14일 일본인 여행자가 김포공항으로 휴대, 반입한 고구마(sweet potato) 1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충이 다수 발견되어 동해충을 사육한 결과 개미바구미(*Cylas formicarius* Fabricius)로 판명되었다(국립식물검역소 1988).

개미바구미는 고구마의 대해충으로 열대지방 전역과 온대지방 일부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(安 등 1988, C.I.E. 1970, 眞崎 1982) 우리나라에서도 경계해충으로 지정하여(국립식물검역소 1986) 동해충의 기주식물은 수입금지로서 하는 등 국내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.

발견된 유충은 고구마를 먹이로 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항온기(25 ± 2°C, 80 ± 5%)내에 습도 조절과 용화를 돕기 위하여 모래를 10 cm 정도 넣은 데시게이타에 넣었으며 위에는 망사를 씌워 놓았다. 사육시작후 17일만에 14마리가 우화되었으며 18일째에 7마리가 더 우화되어 총 21마리가 우화하였다.

유충이 우화하고난 고구마의 내부는 불규칙한 식흔과 심한 악취가 났으며 피해 고구마는 식용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.

이번의 경우 일본인 여행객이 가지고 온 단 1개의 고구마에서 이런 경계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여행객의 휴대식물검역에 더욱 철저한 경계가 요망되고 있다.

#### 引用 文 獻

安聖復, 趙旺秀, 李文弘, 崔鑽文. 1988. 우리나라에 侵入이 憂慮되는 警戒害虫(II). 韓應昆. 27 : 225~235.

C.I.E.(Commonwealth Institute of Entomology). 1970. Distribution Maps of Pests. Series A (Agricultural). Map No. 278.

국립식물검역소. 1988. 여행자 휴대 고구마에서 개미바구미 첫發見. 植物檢疫情報 11 : 3.

국립식물검역소. 1986. 수입금지의 지역 및 식물. 18 pp.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.

眞崎誠. 1982. 侵入が警戒される重要昆虫類—ゾウムス類を中心として. 植物防疫 36 : 7~8.

<sup>1</sup> 국립식물검역소 서울지소(National Plant Quarantine Office Seoul Branch)